

## 영상으로 배우는 영어

영어를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흥미도 잡고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지요. ‘재미’와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영어 수업. 영상을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영어 수업에서 영상을 활용해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교사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도 들어봅니다.

### 서울 신상중 정서라 교사의 영상을 활용한 영어 수업 미국 드라마 보며 실생활 영어표현 익혀요



‘영어 잡지 만들기’ 수업에서 영상을 본 뒤 모둠별로 잡지를 만드는 활동을 하는 서울 신상중 학생들. 신상중 제공

“He was a bit of a drama queen(그는 별 것 아닌 일에 유난떠는 구석이 있어).”

미국 드라마 ‘모던 패밀리(Modern Family)’에 나오는 대사 중 하나인 이 표현은 중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서는 익힐 수 없는 표현이다. ‘drama queen’은 우리말로 직역하면 ‘드라마 여왕’이지만 미국인들은 이를 ‘사소한 것에 과장하는 사람’이라는 관용어로 사용한다.

서울 신상중의 주제선택 프로그램인 ‘영어 잡지 만들기’ 시간에는 이렇듯 교과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다양한 영어 표현을 익혀보는 활동도 한다. 미국 드라마와 외국인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본 뒤 영상에 등장한 표현을 익혀보는 활동을 하는 것.

신상중의 ‘영어 잡지 만들기’ 수업은 △오리엔테이션 및 잡지 커버 만들기 △Fashion(패션) △People(사람) △Travel(여행) △Food(음식) △Movie(영화) △School life & Dream(학교생활과 장래희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4명씩 조를 이뤄 수업마다 각 주제에 관한 잡지를 만든다. 한 가지 주제는 2차시씩 묶인 블록타임으로 진행되는데, 주로 블록타임의 첫 번째 시간에는 해당 주제에 관련된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우고, 두 번째 시간에는 앞서 배운 영어 표현을 활용해 직접 잡지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 수업을 기획한 정서라 영어 교사는 ‘사람’과 ‘음식’을 주제로 한 수업 시간에 영어 영상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했다.

## 등장인물 관계 파악하며 어휘력 UP

수업에서 영상을 보여주기 전,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습지를 나눠준다. 사전활동 없이 영상만 보게 되면 학생들은 단순히 ‘영상을 관람 하는 시간’이라고 여기고 영상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지 않기 때문. 영상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지를 구성해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여주는 것이다.

‘사람’을 주제로 한 수업 시간에는 미국 드라마인 ‘모던 패밀리’ 시즌 1의 1화를 본다. 영상을 보기 전 교사는 주요 등장인물인 △ Mitchell(미첼) △Haley(헤일리) △Manny(매니) △Gloria(글로리아) △Phil(필) △Jay(제이) △Luke(루크) △Alex(알렉스) △Claire(클레어) △Cameron(카메론) 등의 사진과 이름이 적힌 학습지를 나눠준다. 학습지에는 △Manny’s stepfather(매니의 새아버지) △Phil’s wife(필의 부인) △Claire’s husband(클레어의 남편) △Jay’s daughter(제이의 딸) 등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와 △Proud of Columbian culture(콜롬비아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김) △Good at running(달리기를 잘함) △Interested in Asian culture(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있음) 등 각각 인물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들도 무작위로 적어둔다.

학생들은 모던 패밀리 1화를 보면서 학습지에 적힌 등장인물 간의 관계와 각 인물들의 특징 및 성격을 파악한다. 이후 학습지에 있는 인물들의 사진을 오려 가계도를 그린 뒤 해당 인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아 연결짓는다. 예를 들어 극중 부부인 필과 클레어를 ‘하트’ 표시로 연결짓고, 필의 사진 아래에는 ‘Claire’s husband’라고 적은 뒤, 클레어의 사진 아래에는 ‘Phil’s wife’라고 쓰는 것. 클레어가 달리기를 잘 하는 인물이라면 ‘good at running’이라는 표현도 함께 적는 식이다.

정 교사는 “모던 패밀리 영상을 집중해서 봐야만 인물들 간의 관계와 각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 “영상을 보며 stepfather(새아버지), husband(남편), daughter(딸) 등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영어 단어를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a drama queen’과 같이 영어권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을 배움으로써 영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재미있게 배우는 외국문화

‘음식’을 주제로 한 수업 시간에는 먼저 조별로 음식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다. ‘세계의 기이한 음식’ ‘매운 음식’ 등 재미있는 주제를 선택해 영어로 기사를 작성한다. 이후 영어로 맛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기 위해 외국인이 한국 과자를 시식하고 평가하는 동영상을 시청

한다. 영상을 재생하기 전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는 무엇일지’ ‘어떤 맛의 과자를 좋아할지’ 등을 추측해보고 간단히 이야기를 나눈다.

정 교사는 “외국인들이 맛있어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과자와 실제로 영상 속에서 외국인들이 맛있어 하는 과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은 간접적으로 외국인들의 입맛과 음식 문화 등을 알게 되며 호기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영상을 볼 때는 △Sweety(달콤한) △Chewy(쫄깃쫄깃한) △Crispy(바삭바삭한) △Salty(짹짹한) △Sticky(달라붙는) △Greasy(느끼한) △Sugary(설탕이 든) △Mild(부드러운) △Spicy(매콤한) △Sour(시큼한) △Hard(단단한) △Bitter(떫은) 등의 맛 표현 단어카드를 함께 살펴볼도록 한다. 외국인들이 표현하는 맛과 일맥상통하는 단어카드를 찾아 연결짓고 해당 단어카드가 무슨 뜻인지 익히는 시간을 갖는다. 직접 여러 종류의 과자를 먹어본 뒤 각각의 과자가 어떤 맛인지 앞서 배운 단어를 활용해 “This snack is crispy” 와 같이 시식평을 작성한다.

정 교사는 “일반적인 영어 교과서는 문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생활 영어를 접할 기회가 적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외국인들이 직접 영어로 말하는 영상을 보며 학습하면 실생활 영어를 공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와 영어권 문화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mailto:songi121@donga.com)

### “스스로 영상 찾아 공부하도록 흥미 유발”

#### Q. 수업을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은?

영상을 활용하는 수업이다 보니 기자재 작동 여부가 수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수업 전 쉬는 시간 등을 활용해 교실에서 서 영상이 잘 재생되는지, 소리는 잘 들리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영상을 선택할 때는 한글 자막이 없는 동영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한글 자막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영상 속 영어를 듣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한글에만 의존하기 때문. 한글 자막이 있는 어려운 영상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자막이 아예 없거나 영어 자막이 삽입된 다소 쉬운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 Q. 수업의 효과는?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이나 어휘 위주로만 수업을 진행하면 지루해 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반면 수업에서 영상을 활용하면 학생들은 새로운 수업 방식에 흥미를 느끼고 집중한다. 영상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듣기와 읽기 학습을 할 수 있어 학습 효과도 높다.

물론 단기간에 영어 회화 실력이 극적으로 향상하는 것을 기대 하기는 어렵다. 학생들이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와 문장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수업의 최종 목적은 학생들이 영어로 된 영상 자체에 흥미를 느껴 자발적으로 영상을 찾아보게 하는 것에 있다. 수업에서 ‘모던 패밀리’ 1화를 보여줌으로써 흥미를 유발했다면 학생이 집으로 돌아가 스스로 2화, 3화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영어 회화 실력을 기를 수 있다.

#### Q.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수업에 적합한 영상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유튜브를 활용해 자막이 아예 없거나 영어 자막이 있는 영상을 최대한 다양하게 찾아보고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영상은 2~3분 내외로 너무 길지 않게 보여줘야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되도록이면 영상을 처음 볼 때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상을 봐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먼저 제시해주는 것이 좋다.

▶정서라 서울 신상중 영어 교사